‘新春’ 교토·간사이서 부처님 향훈 느끼다

새봄에 가볼만한 간사이 불교성지들

박영빈 객원기자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하지만 고대 불교사로 살펴보면 한국과 뗄 수 없는 가까운 나라가 또 일본이다. 일본의 정신적 수도인 교토를 중심으로 한 긴키(近畿), 간사이(關西)지방은 수많은 사찰들과 불교유적들이 가득한 곳이다. 담징 스님이 금당벽화를 그린 호류지(法隆寺)부터 거대한 대불이 모셔진 도다이지(東大寺)등 이미 한국의 불자들이 익숙한 성지들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들은 물론, 유명한 사찰들 사이에서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스쳐지나가는 곳들도 많다.

무엇보다 3월 교토는 만개한 벚꽃들로 꽃대궐을 이룬다. 오는 봄날 싱그러운 봄 향기와 함께 간사이 곳곳에서 피어나는 불향(佛香)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최근 간사이 불교 순례를 다녀온 박영빈 객원기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간사이 사찰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회랑에서 바라본 시텐노지 금당. 회랑으로 가람을 둘러싸는 양식은 중국에서 시작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다. 사진=위키피디아 재팬

오사카 시텐노지

오사카 텐노지구에 소재한 시텐노지(四天王寺)는 593년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에 의해 건립됐다. 백제에서 초빙한 목수들이 지은 사찰로 당시 일본 조정이 나서서 지은 최초의 관영사찰로써 “일본 불교 최초의 도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심 가람의 배치가 탑, 금당, 강당이 일직선으로 늘어선 백제식 가람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호류지식 가람양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깊은 역사를 자랑한다.

이때 백제에서 온 목수 중 한사람인 유중광(柳重光)이 쇼토쿠 태자로부터 ‘콘고(金剛)’라는 성을 하사받아 콘고 시게미츠(金剛重光)로 이름을 바꾸고서 대대손손 목조건축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회사를 꾸렸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라는 ‘콘고구미(金剛組)’다. 참고로 콘고구미는 근대까지도 시텐노지의 유지보수를 담당했으며 지금도 본사건물이 시텐노지 옆에 위치하고 있다.

여러 차례 전화(戰火)와 태풍에도 다시 세워진 사찰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목탑과 정문, 금당, 남측 회랑이 완전히 불타버렸다. 이후 복원불사에서 목조가 아닌, 철근콘크리트로 복원이 되면서 옛날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양식은 처음 창건 되었던 아스카 시대의 양식으로 복원 됐다. 새롭게 복원된 금당의 본존불은 구세관세음보살(救世觀世音菩薩). 일본에서는 쇼토쿠 태자가 관세음보살의 현신으로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태어난 인물이라는 ‘태자신앙(太子信仰)’이 전하고 있는데 본존인 구세관세음보살이 바로 쇼토쿠 태자의 본모습이라는 것이다.


고야산 근본대탑. 내부에는 불상과 벽화로 입체만다라를 조성했다.

흔히 종파불교의 특색을 가진 일본으로 아무리 크고 역사가 깊은 사찰이라도 특정 종단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시텐노지는 일본불교 최초의 도량이라는 이름답게 특정종단이 아닌 모든 종단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찰로 성장했다. 현재는 쇼토쿠 태자를 종조로 하는 화종(和宗)의 총본산으로 자리하고 있으나 일본불교사에 유명한 위인들과 고승들이 참배하였고 이들을 기리는 법당이 사찰 곳곳에 숨어있다.

시텐노지 곳곳에 있는 작은 법당이나 사당들 가운데 무심코 지나가지만 중요한 곳이 바로 ‘반쇼도(番匠堂)’라고 하는 작은 사당이다. 쇼토쿠 태자를 모신 타이시덴(太子殿) 근처에 위치한 이 사당은 바로 시텐노지를 건설한 백제의 목수들을 위한 사당이다. 목수들을 위한 사당답게 사당의 앞과 좌우에는 목수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로 ‘나무아미타불’의 육자명호의 형태를 만들어 새긴 비석과 깃발이 걸려있다. 사당 안에는 곱자(曲尺)를 들고 있는 쇼토쿠 태자상이 모셔져 있는데 매달 22일에만 문을 열어 개방한다.


쿠라마데라에서 키후네신사로 넘어가는 트래킹 코스.

와카야마현 고야산

와카야마현에 소재한 고야산(高野山)은 예나지금이나 일본불교 최고의 성지로 손꼽히는 영산(靈山)이다. 816년 당시 일본에서 존경받던 고승 쿠카이(空海)대사가 개산한 이래 지금까지 진언밀교의 법등을 이어온 성지다. 흔히 고야산이라는 이름에서 어느 산 하나가 고야산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해발 1,000m급 산 8개에 둘러싸인 해발 800m의 고원을 일컫는 말이 바로 고야산이다.

흔히 한국에서 고야산이라고 하면 쿠카이 대사의 묘인 오쿠노인(奧之院)이 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무덤이 있는 곳,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 왜 이곳이 그렇게 중요한 성지로 꼽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여기서 간략하게 고야산의 연기설화를 이야기 해보자.

806년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쿠카이 대사는 명주항의 바닷가에서 “내가 받아 이은 교법을 펼칠 인연처가 있거든 먼저 일본으로 돌아가 알려다오”라고 발원하며 삼고저를 일본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삼고저가 오색구름을 타고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삼고저가 있을 곳을 찾아 일본 각지를 행각하던 중 지금의 나라(奈良)의 어느 곳에서 희고 검은 두 마리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냥꾼이 나타나 “이곳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간 산속에 스님이 찾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개들이 안내할 것입니다”하곤 사라졌다.


고야산 오쿠노인에 모셔진 무덤들, 일본역사의 유명인사들의 묘도 다수 존재한다.

쿠카이 대사가 남은 개들을 따라 이윽고 지금의 고야산 기슭에 이르자 고야산의 산신이 나타나 “지금 보살께서 이 산에 오신 것은 모두 나의 큰 행복입니다. 이 산을 영구히 스님께 공양합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개들을 따라 산속 깊은 분지에 이르자 한 소나무 위에 오색광명을 비추는 삼고저가 걸려 있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고야산은 진언밀교의 근본도량이자 일본에서 손에 꼽히는 성지로 공경 받는다.

쿠카이 대사는 835년 세납 62세에 입정에 들었다. 입적이 아닌 입정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입정에 들기 보름 전에 이미 자신의 몸을 둘 동굴을 정하곤 곡기를 끊고 선정에 든 채로 좌탈입망하였기 때문이다. 대사의 법구는 다비하지 않고 유언에 따라 동굴에 모시고 문을 봉인하였는데 80여년 후, 조정에서 코보 대사(弘法大師)라는 시호와 함께 괴색의 가사를 공양 올렸는데 이때 가사를 법구에 입히기 위해 굴을 열었을 때 대사의 법구에 혈색이 돌고 머리칼과 손발톱이 자라나 있었다는 설화에서 코보대사가 아직 살아서 미륵보살이 오실 때까지 선정에 들어 계신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이와 함께 미륵보살이 하생하실 때 오쿠노인에서 코보 대사가 일어나 마중을 나가기에 이때 함께 미륵보살을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뵙고자 오쿠노인에 묘를 만들던 것이 바로 지금의 수많은 무덤들이 만들어진 시작이다.

교토 쿠라마데라

교토 북쪽 쿠라마야마(鞍馬山)의 남쪽 기슭에 위치한 쿠라마데라(鞍馬寺)는 다른 교토의 유명 사찰들에 비해 접근성이 어려운 편이고,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 중 한 곳이다.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인 히에이산(比叡山)과 함께 교토의 북쪽을 수호하는 산으로, 고대부터 교토의 영산으로 이름이 높아 천황이 직접 참배하는 등의 역사가 전한다.

쿠라마데라의 시작은 770년 당에서 칸테이(鑑禎)스님이 비사문천(다문천왕)을 본존으로 모신 암자를 건립한 것이 시작으로 전한다. 이후 어느 귀족이 꿈에서 계시를 받이 칸테이 스님이 모신 비사문천상 옆에 천수관음상을 조성해 모시고 규모를 갖춘 사찰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진언종의 사찰로 이어져오다가 12세기부터는 천태종 사찰로 법등을 이어오다가 1947년에는 단독 종교법인이 됐다. 한때는 산내에 19개의 암자와 말사를 거느린 대찰이었으나 19세기 초에 산 전체가 타버리는 대화재로 쇠퇴했다가 부흥에 성공했다.

쿠라마산이 유명한 이유는 영산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호법마왕(護法魔王)이라는 특이한 호법신의 존재도 있다. 일본의 여러 설화 속에 등장하는 요괴인 텐구(天狗)가 이곳에서는 호법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것이다. 이 텐구는 그냥 요괴도 아닌, 여러 귀신들을 부리는 급이 높은 요괴로 이곳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파계한 출가자가 죽어서 텐구가 된다고도 한다. 그렇기에 불법을 꺼려하여 수행자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쿠라마의 텐구는 특이하게도 불법을 수호하는 텐구다. 전설에는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동생인 요시츠네가 쿠라마에 유폐되어 있을 때 밤마다 호법마왕이 산속에서 검술과 병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전설을 증명이라도 하듯 쿠라마데라의 금당 뒤로 이어지는 산속에는 호법마왕은 모신 법당과 요시츠네가 검술을 배웠다는 터가 남아있다. 호법마왕을 모신 법당에서 산 아래의 키후네 신사(貴船神社)로 이어지는 산길은 조금은 가파르지만 트래킹 코스로도 유명해 등산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낡은 나무 책상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뭉그러진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지원 물품 학용품(가방, 노트, 연필, 연필깍기…), 신발, 의약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75 (현대불교신문)
※물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02)2004-8200 (홍승도)
캄보디아 현지 방문 1차 : 6월 2차 : 1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